

5·18 국립묘지 제2묘역 만든다

6000여 m² 부지 1000기 수용 규모
국비 8억 원 들여 내년 말 완공 예정

국립 5·18 민주묘지 제2묘역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3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기준 5·18 민주묘지가 앞으로 4년 안에 민장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비 8억 원을 들여

제2묘역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2묘역 예정 부지는 기존 5·18 민주묘지 내 숲묘루와 후문 사이 6000여 m²다. 안장 수용 규모는 1000기로, 봉분 조성 방식도 봉분을 만들지 않

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평토장(平土葬)으로 바뀐다.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설계와 용역을 거쳐 내년 초 제2묘역 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내년 말에 공사를 완료, 오는 201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에는 627명의 5월 영령들이 안장돼 있다. 이는 5·18 민주묘지의 총 안장 규모인 784기의 80% 수준으로, 5·18 당시 사망자(157명)·행방불명

자(67명)·부상 및 연행, 구금자(4088명) 등 모두 4312명이 제4차 보상 기준 안장 대상자로 선정돼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997년 16만 m²의 부지에 5·18 민주묘지를 조성 했으며, 5·18 민주묘지에는 묘지(9900m²), 역사 공간(1만 8000m²), 민주광장(9900m²), 참배광장(1만 2000m²), 전시 공간(2600m²) 등이 조성돼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땅 주인 35%가 '외지인'

토지보상 대상자 899명 중 317명... 수도권 거주자 많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토지보상 대상자 10명 중 3명은 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3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투기'가 의심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지구 안에서 보상을 받은 899명 가운데 35%(317명)가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풀린 보상금 1160억 원 가운데 322억(28%)이 외

지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토지 보상 대상자(1만 3290명) 가운데 차지하는 외지인(4220명) 비율이 32%인 점에서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을 받은 외지인들 가운데 서울이 63명(2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도 44명(14%)에 이르는 등 수도권 거주자가 3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 보상금만 126억 원(39%)에 이른다.

혁신도시 사업지구 외에 거주하

면서 보상을 받은 광주·전남 지역 민은 광주 138명(44%), 전남 37명(12%)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166억 원으로 나타났다. 582명(65%)은 사업지구내 거주민들로 모두 838억 원을 보상받았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총 보상비 2조 7436억 원 가운데 외지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6047억 원으로 전체 보상비의 22%를 차지했고 시·도별로는 서울 1673억 원(28%), 경기 985억 원(16%), 인천 115억 원(2%) 등 수도권 거주민들이 받은 보상비가 전체의 46%에 달했다.

혁신도시 중 충북(51%)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의 토지보상자 상당수가 서울, 경기 등 외지인에게 지급된 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총 보상비 2조 7436억 원 가운데 외지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6047억 원으로 전체 보상비의 22%를 차지했고 시·도별로는 서울 1673억 원(28%), 경기 985억 원(16%), 인천 115억 원(2%) 등 수도권 거주민들이 받은 보상비가 전체의 46%에 달했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F1기간 무안공항 항공노선 증편

관광객 급증 예상 22일부터 국내외 7편 늘려

F1(포뮬러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앞두고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국내외 항공편이 임시 개설된다.

전남도는 22일부터 3일간 포뮬러원(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기간 무안국제공항의 국내외 항공 노선을 증편 운항한다고 3일 밝혔다.

F1 대회 기간 중 대회 관계자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남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국내선은 2편이 늘어나고 국제선도 5편이 증편 운행한다.

국내선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이 23~24일 A-321 기종을 도입, 무안~김포 노선을 운항한다.

23일에는 오전 9시 5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권을 운행하고 24일에는 오전 8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8시 55분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임시편과 오후 7시 10분 무안공항을 출발해

오후 8시 25분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임시편을 각각 운항하기로 했다.

국제선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이 2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전세기를 피우고 대한항공은 청도(21일), 광주(23일)간 전세기를 운행한다. 이와 대만(21일), 방콕(22일) 등에서도 해외 관광객을 실은 전세기가 무안공항에 입국한다.

대회 관계자도 속속 전남을 찾는다.

미하엘 슈마허와 버니 에클레스톤(Bernie Ecclestone) F1 매지니먼트(FOM) 회장, 카룬 찬독이 21일 각각 전세기편으로 무안공항에 입국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대회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울도심 F1경주차

3일 서울 태평로와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르노 F1(포뮬러원)팀 시티 데모에서 F1경주차가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이번 시티 데모는 F1 머신의 첨단기술을 국내 팬들에게 알리고 오는 22일 영암에서 시작되는 F1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영선 실장

문인 사무처장

시(26회) 출신으로 전남도 기획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화담당관,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장, 광주시 기획관 리실장을 지냈다.

문의회 사무처장 내정자는 기술고

시(20회) 출신으로 광주시 지하철건

설본부장, 건설국장, 북구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FC 시민주 공모

청약액 15억 넘어서

오는 12월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FC)의 시민주 청약에 1만 9천여명의 시민이 소액주주로 참여하면서 청약액이 1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광주시는 3일, 지난 6~7월 1차 시민주 공모에서 1만 1144명의 시민이 10억 5000만 원의 시민주를 청약한데 이어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2차 시민주 공모에서는 학생,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7924명이 참여해 5억 원을 청약하는 등 이날 현재까지 1만 9068명이 모두 15억 5000만 원의 시민주를 청약했다고 밝혔다. /홍경기자 redplane@

전남도, 美 3개 기업서 8천만달러 투자유치

전남도는 민선5기 첫 해외 투자유치 순방을 통해 미국 3개 기업과 총 8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단장으로 한 전남도 투자유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을 순방하고 마리나·리조트 기업인 컨티더(Contender)사와 3천만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또 조류발전기업인 버던트파워(Verdant Power)사와는 2천만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부품조립리미 컨설팅 회사인 젤스프로(Gexpro)사로부터는 3천만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도 세계적인 농수산물 유통회사인 멜리사스(Melissa's)사와는 농수산물 수출을 협력협약을, 섬개발과 은퇴자도시개발 기업 등 3개 기업과는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애리조나주정부 및 애리조나주립대학은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本社 駿令

▲姜喆壽: 전북취재본부장 겸 전주주재국장

▲朴基永: 전북취재본부 정읍주재 국장

▲柳貞熙: 전북취재본부 익산주재 부국장

▲李東熙: 전북취재본부 순창주재 부장

▲趙鍾玉: 전북취재본부 고창주재 부장

▲白善: 전북취재본부 남원주재 차장

(10월 4일자)

日만정

- 김종우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동북아 태양광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 시행 통합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재)전남테크노파크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태양광 분야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남권역 내 태양광산업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과 마케팅 과정에서 직면하는 예상기술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가의 실질적인 기술지도 및 간접적인 예산 지원등을 통하여, 기업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사업으로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0. 10. 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지원내용]

① 예상기술 지원

② 지원내용 : 태양광산업 분야 ①제품개발 및 ②공정기술 등과 관련한 기업체 예보기술

③ 지원금액 : 10,000억 원, 전·내외 사업자 12개

④ 지원방법 : 관련 예보기술 전문가를 지원(20명/회)

⑤ 지원기기 : 3개월 이내 (단기지원지침)

⑥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10%

⑦ 지원기간 : 경영 및 경영 개선 및 협업 개발프로그램

⑧ 지원비용 : 업체당 1건으로 지원 기업 자체 예산으로 허용

⑨ 지원 범위 :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지원(100만 원/회)

⑩ 지원 내용 :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지원(100만 원/회)

⑪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⑫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⑬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⑭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⑮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⑯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⑰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⑱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⑲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⑳ 지원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